

‘잔류허용기준 및 지적재산권’ 재조명

4. II JW메리어트 서울호텔서, 지속 확대 발전 목소리 이구동성



조상학 상무이사
(한국작물보호협회)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최근 CropLife Asia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작물보호협회는 지난 4월 11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서, 최근 농약과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보호와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evels) 및 수입허용량(IT, Import Tolerance)에 대한 국제적 동향 파악은 물론 국내의 합리적인 농약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작물보호제의 잔류허용기준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조명(An Updates on MRLs and IPR in CPP)」이란 주제를 내걸고 세계 작물보호협회의 아시아 지부격인 CropLife Asia와 워크숍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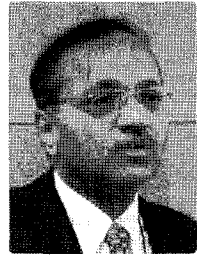


해 시의적절 했다는 평이다.

CropLife 관계자 및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업계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조상학 상무이사는 개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 지구촌은 도처의 엄청난 시련을 지켜보며, 우리 인류의 안전과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소중한 과제인지를 깨닫는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포식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OECD회원국 가운데 곡물자급률 최하위권 국가에 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회의가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지속적인 산업 발전, 우리농업과 인류 건강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산업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진중히 토의하는 한편 MRL 및 IPR에 대한 최신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asant Patil박사의 CropLife Asia의 역할과 비전 소개에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CropLife International의 Otto Klein박사(바이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MRL 설정 절차 및 코덱스의 작물그룹화, EU의 IT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업계뿐만 아니라 농진청 및 식약청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을 유인해 냈다. Otto박사는 발표에서 무역 분쟁의 경우 Codex MRL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의 국제 기준으로써 사용(위생 및 검역조치 가능)하며 많은 국가들이 JMPR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Codex MRL을 자국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물을 그룹화 하여 하나의 MRL 기준을 설정하는 작물그룹화는 국내 및 국제 잔류 프로그램에 매우 유용하고, 재배자의 수출시장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EU, 미국, Codex가 작물그룹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제작물그룹자문위원회(ICGCC) 및 Codex에서 분류시스템의 개정 등 작물그룹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또 일본농약공업회(JCPA)를 대표해 참석,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LS) 및 IT에 대해 발표한 한 Hiroo Wakimori박사(몬산토)는 MRL Negative List를 사용한 과거에는 미등록 농약이 작물에 검출되었



Vasant Patil 박사
(CropLife Asia)



Otto Klein 박사
(바이엘)



Hiroo Wakimori 박사
(몬산토)



Jennie Ness 박사
(방콕 미 대사)



을 경우, 그 작물을 수용하고 시장에 유통해야 하는 결점이 있었다면서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MRL Positive List가 도입되었고 한계를 0.01로 적용한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PLS제도가 일본 내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6년 도입된 PLS는 5년째를 맞고 있으며 잘 실행되고 있고 수입허용량은 농약등록과정과는 독립적인 MRL 설정 도구로 무역장벽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허용량은 반드시 MRL Positive List과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작물보호제의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방콕 미 대사인 Jennie Ness박사는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정부에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이유, 농약산업은 어떻게 움직이며, 소비자나 농부 그리고 산업에 있어 지적재산의 중요성, 국제적 기준, 농약을 위한 지적재산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동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